

## 제주도의 전략적 선택

김 수 종\*

최근 북유럽 핀란드의 헬싱키대학에서 온 저명한 경영학 교수이자 기업가인 레이오 루오스타리넨이란 분의 강의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교수가 한국에 대해 이야기하며 제주도를 가리켜 "Beautiful Island"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는 기분이 매우 좋았습니다. 5년 전 세계최대의 반도체기업인 인텔을 일으킨 앤디 그로브 회장과 인터뷰를 할 때도 이 분이 한국에서 가장 인상에 남는 곳이 제주도라고 말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물어보지도 않는 제주도 이야기를 꺼내는 것을 들으면서 제주도가 외국인, 특히 서양인에게도 대단히 인상적인 곳으로 비쳐지고 있구나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루오스타리넨 교수이야기를 꺼낸 것은 그 사람이 제주도 칭찬하는 이야기를 소개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가 이야기는 핀란드의 산업전략을 들으면서 이게 우리 나라에, 어쩌면 제주도 사람들에게 어떤 교훈 같은 이야기라고 생각에서였습니다.

핀란드란 나라는 면적은 남북한을 합친 것보다 훨씬 넓지만 인구가 겨우 서울의 절반인 5백 만 명입니다. 역사적으로도 스웨덴과 러시아의 톰바구니에서 18세기까지 식민지노릇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지금 유럽에서 정보통신 산업을 비롯하여 하이테크 산업이 가장 발달한 나라입니다. 예를 들어 노키아라는 회사는 이동통신 사업으로는 세계 최대의 기업이 되었습니다. 무엇이 우리나라 인구의 10%밖에 안되는 핀란드에서 미국의 모토롤라를 압도하는 힘이 나왔을까요. 무엇이 핀란드를 세계에서 미국 싱가포르에 이어 국제경쟁력 3위의 국가로 변모시켰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나라 사람들의 미래를 보는 예지와 이를 바탕으로 한 전략적 선택의 결과입니다. 그 전략이란 것이 바로 국제화였고 이런 전략을 짜고 실천한 사람이 바로 핀란드인들입니다.

루오스타리넨 교수의 말에 의하면 핀란드가 이렇게 첨단산업분야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하게된 가장 큰 동인은 국제화(Internationalization)/세계화(Globalization)해가는 환경변화에 잘 적응을 한 덕택이라고 말했습니다. 한마디로 요새 말하는 변신(Transformation)을 잘한 것입니다. 원래 스웨덴은 삼림국이었어서 목재와 펄프생산이 주된 산업이었다고 합니다.

2차대전후 핀란드의 국제화과정을 표현하는 재미있는 슬로건이 있습니다. 60년대와 70년대 핀란드에서는 "수출하라, 그렇지 않으면 죽는다"(Export or die)라는 말을 했답니다. 우리 나라 60년대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목재 펄프 금속제품 등을 만들어 수출하는 길만이 핀란드가 사는 길이었습니니다. 70년대 들어 핀란드인들은 "국제화하라, 그렇지 않으면 죽는다(Internationalize or die)"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유럽통합의 기운으로 유럽회사들이 핀란드산업을 위협했기 때문에 유럽 다른 나라보다 한발 앞서 시장개방을 하면서 또한 유럽시장을 공략했던 것입니다. 90년 대 후반부터 핀란드 인들이 외친 구호는 "세계화하라, 그렇지 않으면 죽는다"(Globalize or die)였다고 합니다. 인구도 적고 역사적 전통도 유럽에서 자랑할 게 없는 약소국이 택할 수 있는 막다른 골목이었습니다. 핀란드가 세계화전략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이런 전략적 선택과 더불어 높은 영어를 구사할 수 있는 국민들의 높은 교육수준이 결정적인 기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큰 이웃에 둘러싸여 있는 우리 나라와 여건이 사뭇 비슷하다는 생각도 들고 특히 제주도가 이런 핀란드에서 배울 교훈은 없는가하고 생각해보았습니다. 우리는 너무 우리와 사이즈가 안 맞는 미국의 시각에서 우리를 디자인 하다보니 뭔가 되는 것은 없고 영성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핀란드 스위스 이스라엘같은 나라들에서 지혜를 얻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 크기로 말 할 수 없는 지역

제주도가 우리 나라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백분율로 계산해 봤습니다. 제주도 넓이는 남한전체 면적의 약 1.63%이고, 인구는 1.15%입니다. 요새 금강산관광에 이어 남북정상회담으로 북한과의 교류도 확대될 전망이다 한반도 전체를 계산하면 땅덩이도 인구도 1%가 채 안 되는 작은 부분입니다.

이렇게 작은 제주도가 우리 나라 전체 국민에게 어떤 느낌으로 다가서 있을까요. 정말 궁금합니다. 제주도와 별 연고없이 사는 서울주민에게 가끔 물어보면 제주도가 실제 크기보다는 훨씬 클 뿐 아니라 매우 중요한 지역으로 느껴진다는 대답을 받

\* 한국일보 논설위원

니다. 도청같은 기관이 껍질 등 권위 있는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하여 제주도를 보는 국민의 의식 조사를 하면 여러 가지 유용한 자료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만약 제주도가 진도나 거제도 근처에 있고 경상도나 전라도 사람들과 같은 사투리와 풍습을 갖고 있다면 커다란 군이거나 잘 봐줘서 시와 군으로 분리될 정도로 밖에 대접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제주도가 서울 사람들에게 실제보다 크고 중요하게 보이는 것은 땅이 넓기 때문이 아니라 반도에서 동지나해 쪽으로 적당히 떨어져 있는 위치와 독특한 자연환경과 제주도 사람들이 지켜온 문화관습 덕택입니다. 작년에 불란서 대사관 문화담당 영사를 만났는데 영화 이재수의 난 촬영을 보기 위해 제주도를 돌아봤는데 그 경관이 너무나 독특해서 한국의 일부라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더라는 겁니다.

## 제주인의 국제화

육지와 다른 제주도의 모습에서 제주도 발전을 위한 전략적 선택이 나와야 한다고 봅니다. 저는 제주도 발전의 전략적 요체를 “제주인의 국제화” 전략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여차피 세상은 정보화 시대를 맞아 국경이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도만 하더라도 혼자 살수 없습니다. 솔직히 이야기해서 제주도 50만 인구를 먹여 살리는 것은 육지와의 교류입니다. 감귤을 사다먹는 것은 육지 사람들이고 제주도에 관광비용을 지불하는 것도 육지사람이나 외국인입니다. 제주도는 섬 밖에서 활로를 찾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크게 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제주도 땅의 국제화’가 아니라 ‘제주도 사람들의 국제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영어만 쓰고 햄버거를 먹는 이상한 제주도인을 만들자는 것이 아닙니다. 또 풍습과 관습이 그렇게 하루아침에 바뀌는 것도 아닙니다. 여기서 주장하고자 하는 것은 제주도 사람들이 생존을 위해 전략적으로 개방적이고 진취적인 모멘트를 찾아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세계 어느 나라 사람들이 오더라도 상대하여 어울리고 비즈니스를 할 수 있게끔 제주도 사람들이 서울에 한발 앞서 국제적 감각으로 무장되어야 합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머리를 노랑게 물들이고 미국문화에 빠지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쫓대를 가지고 생존하기 위한 방편으로서의 국제화를 하자는 것입니다.

왜 제주도 사람들이 달라져야 하는가를 환경의 변화와 비교해서 설명해보겠습니다.

올해 감귤가격이 폭락하여 제주도경제가 큰 타격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광업도 옛날 같지 않다고들 합니다. 감귤과 관광은 제주도 경제를 지탱하는 양대 축인데 이 축이 불안정합니다.

왜 이런 어두운 결과가 나오는 지는 제주 밖의 외부환경과 제주 안의 내부환경을 들여다보면 일목요연하게 보입니다. 감귤은 농산물 수입개방으로 외국에서 오픈지를 비롯 각종과일이 철도 모르고 물밀 듯이 밀려옵니다. 국내 과일 소비자들의 입맛은 갈수록 까다롭고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주감귤의 시장은 한계에 부딪혔는데 제주도에서는 생산조절에 실패하고 있습니다. 해결이 수확의 유통에서 아무 대책을 세우지 않는다면 올해의 사태가 해소되리라고 낙관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귤나무는 30년전 이곳에서 대학나무라 불릴 정도로 문자 그대로 꿈나무였습니다. 이제 귤은 제주도에 꿈을 주는 작물은 아닙니다. 대체작물이나 직업이동을 하기 어려운 농민들이 현상유지 생계방법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생산 보관 유통 가공 등의 기술개발은 계속되어야 하겠지만 21세기의 제주도가 중점 두어야 할 전략적 산업으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국제환경이 우리를 옥죄어 오고 있습니다.

관광은 분명 미래 전략산업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만 여건은 좋지 않습니다. 북한이 돈벌이를 위해 개방하는 것은 제주도의 국내 관광객유치에 영향을 줄 것입니다. 국내소득수준의 향상과 세계화는 국내 고급관광객을 제주도로 묶어놔 주지 않습니다. 버스타워셔 돌리는 아날로그 관광으로는 관광이 제주도 전략 산업이 될 수 없습니다. 21세기에 맞는 디지털 관광 시대에 대비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디지털은 전자공학적인 의미가 아니라 시대의 변화에 맞는 마인드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사회 문화적 개념입니다.

실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작년 12월 서울에서 사업하는 친지가 바이어를 대접한다면서 제주도 골프투어에 동행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서울손님의 입장에서 1박 2일을 제주관광객(?)으로 지낸 적이 있습니다. 물론 스케줄을 서울 여행사에 맡겼고 우리의 투어를 맡은 제주 현지 가이드가 일을 진행했는데 기가 막힌 상황을 보았습니다. 티 오프시간을 12시 이전으로 당기는데 옷돈이 필요하다며 2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돈을 받은 가이드는 우리를 승용차에 태우고 운전사에게 티오프 시간에 늦지 않게 골프장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운전자는 한 참 달리다 전화를 받고는 티오프 시간이 1시 30분으로 늦춰졌으니 중간에서 식사를 하고 가는 것이 어떠냐는 것입니다. 18홀을 칠 수가 없었습니다. 이튿날도 여행가이드가 얘기했던 티오프 시간에 시작할 수

없이 18홀을 칠 수 없었습니다. 바이어 대접하려고 4명을 '고급호텔료까지 포함해서 4백여만원을 쓰고도 혼비백산해하는 이 친지를 보면서 왜 서울사람들이 태국이나 필리핀이 싸고 편하다는 말을 하는지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제주도 사람들의 잘못이 아니라 서울여행사가 무조건 예약만 받고 핸들을 잘못된 저지만 욕은 제주관광이 먹게 됩니다. 이게 바로 아날로그 관광사업입니다. 배낭여행도 아닌 고급 관광객이 이런 상황에 빠진다면 나는 제주관광은 전략적 가치를 잃고 만다고 봅니다. 한탕주의는 환경파괴와 같이 제주도를 망칩니다.

### 제3의 산업은 없을까

관광은 굴뚝 없는 제주도의 전략산업이긴 하나 제주도가 궁지를 갖고 생존해 가려면 제3의 산업을 찾아야 한다고 봅니다. 제주도가 관광객이 뿌린 돈과 밀감 판돈으로 21세기를 산다는 것은 좀 초라합니다. 대단히 도전적인 과제이긴 하지만 21세기에 펼쳐질 지식기반 사회에 맞는 제3의 산업을 유치하든가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제3의 산업이 무엇이어서 하는지는 제주도 사람들이 지혜를 모아야 할 과제라고 봅니다.

제주도와 정부가 추진하는 국제 자유도시가 이런 제3의 산업을 창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21세기를 지식사회로 바라본다면 제주도가 최소한 우리 나라 지식산업의 한귀통이를 차지해야 할 것입니다. 청정환경과 국제 항공노선 그리고 정보인프라를 잘 활용한 하이테크 파크, 해양이나 생명공학 연구 단지등 지식산업 유치작전을 벌여야 합니다. 이는 제주도를 단조롭지 않고 생동감 있는 지역으로 발전시키는데 중요한 요소라고 봅니다.

이런 지식산업시설을 제주도에 세우려면 제주인이 국제화되어야 합니다.

### 환경적 친화적 개발디자인

제주도의 자연환경은 이 섬에 사는 사람들의 삶의 터전으로 중요하지만, 한국사람 누구에게나 삶의 향기를 더해주는 청량제라 생각합니다. 21세기는 환경의 세기라고 불립니다. 개인적입장에서 볼 때 인류문명이 파멸을 향해 달리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여기서는 전세계적인 환경문제를 논할 자리가 아닙니다. 다만 제주도만 보더라도 심각한 일들이 외부요인과 내부요인에 의해 일어나고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우선 황사가 심해지고 산성비가 한라산의 나뭇잎을 마르게 합니다. 바로 외부에서 오는 환경문제입니다. 중국이 이대로 무절제한 산업화를 한다면 제주도 바다가 청정해역으로 남아 있게 될지 자신할 수 없습니다.

그보다 심각한 것은 무절제한 개발과 도시화에 따른 환경파괴 문제입니다. 제가 걱정하고 있는 것은 환경영향평가를 전성으로 하는 개발주의적 사고방식이 기본 문제이지만 그에 못지 않게 우려가 되는 것은 환경친화적이지 못하고 개성도 없는 제주도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제주도의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살린 도시계획이나 개발플랜을 세우지 않고 서울의 번두리를 흉내낸 고층건물로 제주도를 채우는 것은 제주도의 자살행위가 될 것입니다. 되도록 원시자연상태로 둘 곳을 많이 확보하고 나머지 개발지역도 자연과 기막힌 조화를 이루는 세심한 디자인이 필요합니다. 좀 과장해서 이야기하자면 제주도 자체가 21세기 지식사회에 맞는 국제적으로 손색이 없는 거대한 디자인 작품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 제주발전의 주체

제주도가 갖고 있는 중요한 전략적 자원 중에는 바로 인간자원이 중시되어야 합니다. 결국 핀란드가 국제화에 성공하고, 이스라엘이 사막 위에 옥토를 세운 것은 자연의 힘보다는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나 그곳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정신에 의해 이루어진 일입니다. 제주도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들은 제주에 사는 주민들이 제일 중요하지만 재외 제주인 해외 제주인의 향토애나 지식 등이 매우 유용하리라 생각합니다. 또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일은 제주도에 사는 외지인들의 힘과 지혜입니다. 정확한 통계는 모르나 지난 30년간 제주는 많은 외지인들의 삶의 터전이 되었습니다. 이들이 제주를 이용하는 주민이 되느냐 제주를 가꾸는 주민으로 발전하느냐 하는 것은 제주의 미래를 좌우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주의 국제화와 개발전략에서 가장 중요한 구심점은 제주도를 비롯한 행정기관과 공무원이 되겠지만 그에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소위 NGO로 불리는 사회단체와 교육기관이 있습니다. 특히 제주도의 최고 연구기관인 제주대학이 스스로 국제화하고 제주도민의 국제화에 촉매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